

테러리즘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이 종 원

주제분류 윤리학 사회윤리

주요어 테러리즘, 정당성, 폭력, 세계화, 신자유주의, 불평등, 현대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테러리즘의 여러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테러리즘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테러리즘 자체가 안고 있는 폭력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테러리즘은 그 수단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며, 극단적이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행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시 된다. 테러의 원인들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 근저에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정당전쟁론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을 제기한다. 만약 테러리스트가 행한 폭력이 치명적이거나 파괴적으로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공적인 행동이라면, 또한 그 행위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실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리즘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전쟁의 규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테러의 결과로 말미암은 혜택이나 선이 테러과정 중 초래된 해악이나 고통을 능가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첫째, 무차별적인 폭력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둘째, 무고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고 희생된다는 점에서, 셋째, 폭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테러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은 서로의 차이점을 그대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타자를 환대하는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며, 분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지구촌의 불평등과 불공평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소외된 제3세계의 빈곤해소와 피억압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수고가 요청된다.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과 기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강자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협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제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생명문화의 산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테러리즘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¹⁾ 전 세계 어디에서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²⁾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테러리즘은 폭력사용의 수단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며,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이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³⁾ 카피탄(T. Kapitan)은 테러리즘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 내렸다.⁴⁾ 테러리스트들은 조직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통하여 광범위하고도 극단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⁵⁾ 이때 테러 행위들은 정치적 신념에 의해 강하게 동기화되는데, 이러한 동기화된 행위가 신념을 갖고 있다는

-
- 1) 강봉구는 테러의 특성을 “글로벌 지하드”로 특징지었는데, 이는 테러의 범위가 세계적이며, 갈등의 성격이 국제적이며, 정당화 기제의 특수성과 폭력의 비제한성, 정치적 목적의 비타협성, 자기희생을 통한 초월적 저항 등이 기존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2002년 12월, 141쪽.
 - 2) 테러리즘의 위협은 국제 테러리스트 집단 뿐 아니라 국내 테러리스트 집단들, 극우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반정부 집단들에 의해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B. Mackinnon, *Ethics*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421쪽.
 - 3) 주수기는 테러행위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테러리즘은 계획적이며 고의적이며 냉혈적 잔인성을 띠는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라고 보았다. 주수기, 「현대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분쟁해결연구』 1권 2003년 12월, 75쪽.
 - 4) Tomis Kapitan, “The Terrorism of Terrorism”,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48쪽.
 - 5) 테러리스트(terrorists)들은 경우에 따라 특공대, 빨치산, 도시 게릴라, 건맨, 자유의 투사, 저항군 등으로 불린다. 최근의 테러리스트 조직은 각종 게릴라 단체를 포함하여 약 70개국에 5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백종국, 「9월의 테러와 문명충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6권, 2002년 10월, 11쪽.

사실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⁶⁾ 왜냐하면 그 신념이 바람직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현되었는가에 따라 도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이만(L. P. Pojman)은 테러가 무자비한 파괴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전투원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폭력으로 보았다.⁷⁾ 테러리즘은 첫째, 비전투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⁸⁾ 둘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극단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는 구별된다.⁹⁾ 이러한 의도적인 공포심의 유발은 단순한 살인이나 암살과는 구별되는 테러리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여부 그리고 테러리즘 자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논란의 대상이 된다. 즉 동일한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테러리즘은 빠른 교통, 대량폭탄, 항공기, 생화학적 핵무기 등과 더불어 그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⁰⁾ 특히 생화학테러는 폭탄테러 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위협적

6) B. T. Wilkins, *Terrorism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New York: Routledge, 1992), 1쪽.

7) Louis P. Pojman,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140쪽. 윌킨슨은 테러리즘을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서 폭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를 성취하려는 시도로 정의했다. B. T. Wilkins, *Terrorism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2쪽.

8)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따른 희생자들의 80%는 시민들이었으며, 주로 여자들과 어린이들이었다고 보고되었다. H. S. Wilson, "Terrorism and Religious", Patricia B. Jung, & S. Jung,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363쪽.

9) Jessica Stern, *The Ultimate Terroris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1쪽.

10) Louis P. Pojman,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141쪽.

이다.¹¹⁾

본 소고에서는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들을 고찰하고,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들을 사회 심리적 측면과 국제 정치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테러리즘의 정당성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테러리즘 자체가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리즘을 해결하기위한 현실적인 실천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테러리즘의 유형

테러리즘은 공포와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서 출발한다. 테러(Terror)란 원래 라틴어로 ‘커다란 공포’를 뜻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테러행위, 즉 테러리즘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¹²⁾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 당의 왕당파에 대한 공포정치로 이용한 백색 테러리즘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89-1799년까지의 10년 중 가장 난폭했던 시기를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시대(reign of terror)라고 부르는데, 당시 공화파 혁명정부가 왕권복귀를 꿈꾸던 왕당파를 반혁명분

11) 1988년 3월 이라크가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쿠르드반국의 거점인 할라브자(Halabja)도시를 화학무기로 공격하여 4,000여명의 쿠르드인을 살해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화학무기사용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었다.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91쪽. 생물학적 무기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독성이 강하다. 극소량의 생화학 무기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둘째, 생물학제는 천천히 작용한다.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생화학제는 희생자 안에서 증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수 시간에서 수 주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독소는 즉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치료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생화학제는 식물이나 인간이나 동물에게만 배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넷째, 생화학제의 작용은 기상학적인 조건과 지형과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높게 의존한다. 여행자들에게 의해서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도 유포될 수 있다. 다섯째, 생화학제는 대기 중에 오래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자형태의 탄저균은 토양이나 구조물에도 잔존한다. Jessica Stern, *The Ultimate Terrorists*, 21쪽.

12) 중앙일보, 2001년 9월 13일.

자로 처형하고 명분이 약할 때 암살하는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테러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때 혁명파의 테러는 적색테러라고 하고, 반혁명파의 보복은 백색테러라고 불렀다.¹³⁾ 테러리즘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요인 암살(Assassination)

요인암살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테러리즘의 한 형태로 특정 인물을 은밀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 요인암살 수단으로는 주로 총기류와 포탄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줄리어스 시저(Gaius Julius Caesar)에 대한 귀족계급들의 정치적인 목적의 암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B.C. 44년 3월 14일). 11-13세기에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과격종교 단체들이 암살자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기독교지도자들을 살해하여 공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슬람의 암살자들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적대 세력의 지도자들을 암살했고, 이들의 투쟁은 영웅적으로 미화되었으며, 테러리즘에 투입되어 전사한 자들은 순교자로 추앙받았다.¹⁴⁾ 이러한 암살유형의 테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인질 납치(Hostage Taking)

인질납치는 남미의 혁명 분자들이 1960년대 초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으로 현재는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 납치만큼 즐겨 쓰는 방법이다. 작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는 동료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한

13) 안영섭, 「국제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북한』 394호, 북한연구소, 2004년 10월, 96쪽 참고.

14) 조영갑, 『테러와 전쟁』 (서울: 북코리아, 2004), 19쪽. 오스트리아의 왕위계승자 페르디난드 대공을 세르비아의 테러조직인 가블릴로 프린치키가 암살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고, 1995년에는 이스라엘의 라빈(Y. Rabin) 총리가 암살된 것으로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지도자들이 암살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인질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 혹은 물질적인 양보, 그리고 정치적 선전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다. 이는 위험부담이 아주 적으면서 정치적 선전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3) 자살폭탄 및 폭파테러

사람의 몸이나 차량에 폭탄을 지니고 목표지점에서 자폭하는 자살폭탄 테러와 국가통치시설, 정보 산업시설, 전력 교통설비, 국방시설, 댐 시설, 대형 건물 등 국가의 중요시설과 자원을 폭파 혹은 방화하는 테러행위가 있다. 이 방법은 테러리스트들이 시간과 장소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어 사전에 경계 및 방어가 극히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폭탄의 살상도와 파괴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그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⁶⁾ 자살폭탄테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을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한다는 점에서 무모하고 파괴적인 속성을 지닌다.

4) 항공기납치 및 폭파 테러리즘(Aviation Terrorism)

항공기를 대상으로 삼는 테러는 테러리즘의 유형중 가장 심각하다. 1968년 7월 조지 하바시가 이끄는 팔레스티안 해방인민전선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항공기 엘 알기를 공중 납치한 사건이래로 항공기테러는 계속되고 있다.¹⁷⁾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항공기 납치(Aircraft Hijacking), 항공기의 공중폭파(Sabotage Bombing of Airborne Aircraft), 공항시설과 항공기 이용객에 대한 공격(Attacks against Airline Facilities and Their Users) 등의 유형들이 있는데, 2001년 9·11테러는 그 규모와 결과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피해를 안겨 주었다.¹⁸⁾

15) 같은책, 28-29쪽.

16) 같은책, 29쪽.

17) 같은책, 20쪽.

3. 테러리즘의 원인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상황들은 테러를 더 쉽고 용이하게 만든다.¹⁹⁾ 도시집중화 현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통통신과 대중매체의 발달,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의 첨단화, 일부 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묵인현상 등은 테러발생을 유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적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²⁰⁾ 테러의 발생원인은 사회 심리적 측면과 국제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정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1) 사회 심리적 측면

① 상대적 박탈감

테드 거(Ted R. Gurr)는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테러리즘의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석하였다.²¹⁾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은 기대와 이익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가 클 때 유발된다. 즉 사회적 요구형성도가 사회적 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돌파구를 폭력에서 찾게 되며, 결국 테러로 발전하게 된다.²²⁾

18) 최병두는 9·11테러사건을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국가 없는(stateless) 전쟁, 또는 비대칭적(asymmetric) 전쟁, 또한 제4세대 전쟁으로 특징지었다. 그는 9·11테러를 국경 없는 전쟁의 전주곡으로 간주하면서, 국경을 넘어선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초한 세계화의 공간에서 근대국가의 역할 및 그 영토의 개념은 점차 모호해지거나 무의미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199쪽.

19) 홍순남은 전 세계가 테러라는 지진대에 노출되었으며 사회모방범죄에도 테러가 이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2권 2호 2001년 12월, 97쪽.

20) 조영갑, 『테러와 전쟁』 26-27 참고.

21) 좌절-공격 이론(Frustration - Aggression Theory)이라고도 한다.

22) 같은책 23-24쪽.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의 열등의식을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표출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그들 자신의 경쟁력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착취적 침탈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무차별적인 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강대국이나 강자 등을 증오하면서 테러를 통해 돌과구를 찾으려 한다. 그들은 이러한 파괴를 통해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맞보는 한편, 강대국들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²³⁾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극과 상실감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② 동일시이론

동일시이론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특징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시작된다.²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명분에 사회 구성원들의 주목을 끌어들여 하나의 세력을 투영시키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테러집단들은 수도 적고 영향력도 낮기에 그들의 열세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잔인한 폭력을 통해 심리적 충격과 공포감을 극대화하려고 한다.²⁵⁾

동일시 이론은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지속적인 폭력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단순한 모방에 의한 공격과 폭력의 노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23) 안영섭, 「한국 테러안전지대 아니다」, 북한연구소, 『북한』 405호 2005년 9월, 86쪽.

24) 동일시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같이 존재하거나 똑같이 되려는 희망이며, 좋은 싫든지 간에 자신과 동일시 대상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동일시는 한편으로는 희생자나 인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공격자와의 동일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 테러를 접하게는 대중은 희생자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며, 감정이입에 의해 희생자의 고통을 공감하게 된다.

25) 주수기, 「현대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 76쪽 참고.

측면에서 볼 때 공격적인 사고나 지식(인지의 틀)을 형성하게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공격, 폭력적인 사고를 활성화 내지 점화시킨다.²⁶⁾

그러나 동일시의 적용은 왜곡된 자아상의 투영일 뿐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왜곡된 영웅 심리의 극단적인 표현이기에 올바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 국제 정치적 측면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테러를 목적달성을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동일한 폭력사용이 한쪽에서는 테러가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의 전사로 인식된다.²⁷⁾ 이는 국가 간 테러리즘을 증가시키고 있고, 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빈번한 정치, 군사적 개입은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인식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 체제 이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 영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구가하면서 그 패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이 주도한 정치적 개입의 산물은 수많은 약자들을 양산하였고, 그 결과 얼굴없는 새로운 대항세력들과 맞서는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이다.

3) 경제 정의의 측면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테러리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1996년 유엔 개발보고서에 의하면, 1960-91년 사이 빈곤층의 비중은 전 세계 소득의 23%에서 14%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비중은 70%에서 85%로 증가되었다.

26) 같은책, 85쪽 참고.

27) 조영갑, 『테러와 전쟁』 26쪽.

1991년까지 85% 이상의 세계 인구가 단지 15%의 소득을 얻었으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최상위 부자 358명의 순자산은 세계 인구의 하위 45%(약 23억 명)의 소득과 맞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²⁸⁾ 세계화는 서구의 선진국에 혜택을 편중시켰으며, 빈국들에게는 전통적 경제 영역의 쇠퇴와 부채 및 실업의 증가를 가중시켜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세계적 번영과 평등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세계적 규모의 불평등은 특히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유무역과 민영화 정책은 중동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수많은 빈민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사회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력은 더 많은 억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악순환은 테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그늘에서 무기와 마약의 불법 밀매, 범죄조직의 국제화, 국제적 테러리즘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인구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전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제적 테러조직의 형성과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테러 단체들이 국제 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테러리즘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초국가적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28)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194-195쪽.

4. 테러리즘의 정당성

1) 테러리즘의 정당성 근거

현대의 테러리즘은 상징적 측면이 강하며, 대량정보전달체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고전적 테러리즘이 군사적 필요로써 정당화의 구실을 찾았다면, 현대의 테러리즘은 정치적 필요와 심리적 필요로서 정당화의 명분을 찾는다.²⁹⁾

앤드류 볼즈는 테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당전쟁론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테러의 정당화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만약 국가 간의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테러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 사이의 폭력 행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당전쟁론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듯이, 비국가집단들에 의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도덕적 근거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정당전쟁론이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⁰⁾

만약 테러리즘이 본래부터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여, 목표물을 구분하고 정당한 전쟁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테러리즘은 비례적인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가령 테러리스트가 행한 폭력이 치명적이거나 파괴적으로 의도된 행동이 아닌 공적인 행동이라면, 또한 그 행위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실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테러리즘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전쟁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테러는 도덕적, 법적 규범을 계획적으로 위반하고,

29) 테러리스트들의 행동과 인식 속에는 사회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언론보도의 역할이 강력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주수기, 「현대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 80쪽.

30)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김한식, 박균열,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139쪽.

무자비하게 파괴적이며, 그 표적이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다. 테러는 소름끼치는 폭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테러가 어떤 행위였는지 또는 테러리스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권을 행사했는지에 비례하지 않는다.³¹⁾ 따라서 테러행위의 특성상 테러행위가 공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결과론에 근거한 정당화

일부 테러리스트들은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테러행위를 정당화한다. 이는 결과론적이며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테러리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³²⁾ 그러나 테러행위로 말미암은 혜택이나 선이 테러과정 중 초래된 해악이나 고통을 능가한다고 해서 테러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선한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 또한 정당해야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 행위의 결과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3) 자기방어의 도구

윌킨스는 단순한 범죄 행위들과 테러리스트의 행위를 구분하면서 테러리즘은 나치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의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자기방어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³³⁾ 이러한 테러행

31) 같은책, 210쪽 참고.

32) B. Mackinon, *Ethics*, 422쪽 참고.

33) 유대인 박해의 경우에서 독일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를 위하여 독일정부에 의한 배상은 그 해악이 행해진 후에 도덕적으로 타당한 반응이 되지만, 유대인에 의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테러리즘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동안 도덕적으로 타당한 반응이 될 것이다. 윌킨스는 테러리즘이 자기 방어의 형태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조건 하에서라고 보았다. 첫째, 모든 정치적 법적 처방이 고갈되거나 적용이 불가능할 때이다. 둘째, 집단적으로 폭력사용의 죄를 범한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로 향하게 될 때 테러리즘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B. T. Wilkins, *Terrorism*

위에서 테러의 목표는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선택되는데, 첫째, 테러리즘은 집단적으로 폭력의 죄를 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제한되어야 하며, 둘째, 가능한 한 테러리즘은 기본적 목표물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차적인 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셋째, 테러리즘은 처음에는 폭력의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향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폭력에 함께 참여했던 연루자에게 향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³⁴⁾

윌킨스의 주장처럼 자기방어의 수단으로서 테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 큰 폭력이나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사용도 윌킨스가 강조했듯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폭력이 한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면 보복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폭력 사용에서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폭력 자체는 이미 폭력성이 갖고 있는 무한한 파괴적인 힘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 실례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는 이스라엘 또는 친미세력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들의 테러는 극단적이어서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알라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또 다른 폭력을 낳아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4) 폭력의 정당성문제

테러는 약자의 무기로서 단순한 폭력이기 보다는 인정(recognition)과 주목(attention)을 획득하는 정치적 동기가 부가된 폭력이다. 이는 실제로 테러리즘이 지니는 선전 및 홍보기능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이 때 사용되는 폭력은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최후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용인되기도 한다.³⁵⁾ 폭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소렐(Georges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27-28쪽.

34) 같은책, 29-30쪽.

Sorel)과 파농(Frantz Fanon)이 있다. 소렐은 폭력을 아픈 곳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였고, 파농은 폭력을 하나의 정화시키는 해방의 힘으로 보았다. 파농은 폭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의식으로부터 그리고 절망과 무위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며, 자기 존경을 회복하게 한다고 보았다.³⁵⁾

그러나 폭력이 치료하고 정화시키는 효과적인 힘이며, 인정과 주목을 끄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폭력 자체에는 이미 극단적이며 무차별적인 해악의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³⁷⁾ 따라서 테러리즘은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지니며, 무고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악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폭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틴 루터 킹은 저항의 수단으로 비폭력을 선택하여 그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폭력은 비겁한 자의 방법이 아니라 강자가 택하는 방법이며, 비폭력의 목적은 과멸이 아니라 화해와 양보였다. 또한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악을 행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악을 대상으로 삼고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35) 유럽문명과 기독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히틀러 암살음모에 가담하였던 본 웨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6) 맹용길, 『폭력과 비폭력』(서울: 쿤란출판사, 1994), 11-12쪽 참고.

37)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166쪽.

5.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

1)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영국의 역사가 홉스바움에 의하면 20세기는 극단주의의 역사였다. 제국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이슬람근본주의 등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세력들이 극성과 난동을 부렸던 시대였다. 20세기는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세기였다고 할 수 있다.³⁸⁾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러한 전쟁과 극단주의를 청산하고 함께 사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문명 간의 이해와 존경은 인류가 서로 돕고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기초가 된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다.³⁹⁾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명 간에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타자에 대한 낮은 경계를 넘어야 한다. 각자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자를 인정하게 될 때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구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공통된 삶의 터전에서 공생하고 있다는 운명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서로 간에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슈라이버는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개념으로서 용서의 윤리를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하는 용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 않지만, 복수는 포기하는 것이다.⁴⁰⁾ 진정한 용서는 증오가 낳은 분열을 적극

38) 이삼열, 「신앙세계」, 2001년 11월호. 62쪽. 1차 세계대전에서 1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 5백만 명이 사망하였다.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56쪽.

39)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은 서구의 개인주의가 빚은 결과를 과도한 개인주의, 타자에 대한 연대성 상실, 열광적인 자기중심주의로 해석했다. Jean Baudrillard & Edgar Morin, *La violence du monde*, (배영달, 『세계의 폭력』 [서울: 동문선, 2003]), 61쪽.

40) 쓰라린 과거의 악 앞에 마주 서되, 보복하겠다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입장을 이해하며, 고난 받은 자들의 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입장을 이해하며, 고난 받은 자들의 편에서 가해자 및 그들의 정치적 후손

적으로 치유하여 인간관계의 갱신을 목표로 하기에, 무제한적인 부당한 복수를 반대하며, 그러한 복수는 포기할 것을 강조하였다.⁴¹⁾

테리다는 관용과 용서를 넘어 타자를 향한 참된 개방의 태도인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⁴²⁾ 그는 관용 개념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기반을 주목하면서 바로 이 점이 관용 개념을 겉보기보다는 중립성이 약한 정치적, 윤리적 개념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독교적 기원은 관용 개념을 온정주의적 태도의 잔존물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타자가 평등한 상대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종속되며 동화되고 결국 타자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⁴³⁾ 그에 따르면 관용은 늘 강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환대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 있는 태도라고 할 있다. 따라서 참된 해결의 원리로서 제시되는 환대는 강자의 편에서 손을 내미는 용서와 관용의 차원을 넘어선다. 환대는 타자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타자의 자리를 미리 열어놓는다. 이러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서로 간에 친밀한 연대감을 형성될 수 있게 된다.

들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진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용서의 윤리적 용기이다. Donald W. Shriver, Jr, *An Ethic for Enemies : Forgiveness in Politics*, (서광선, 장윤재, 『적을 위한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494쪽.

41) 같은책, 26쪽.

42) 테리다는 관용의 일방성은 극복할 방법이 없는 반면, 환대는 훨씬 유연한 개념으로 보았다. 테리다는 관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조건 하에서, 우리의 권위, 법, 주권 하에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서, 관용 자체 보다 훨씬 더 관용적인 환대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 『테러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89-290쪽.

43) 같은책, 46쪽 테리다에 따르면 관용과 용서는 모두 아브라함적 원천으로서 확고한 주인의 자리에서 객에게 제한된 조건부 개방만이 주어지는데, 이는 절대적 타자성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결과를 빚는다고 보았다.

2) 세계화의 역기능을 극복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테러는 영향력을 빼앗긴 정치집단 또는 심지어 국가가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부족으로 인해 찾게 되는 하나의 극단적인 돌파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폭력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준 국제적 부정의와 불평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9·11테러를 승승장구하던 세계화의 뒷에 걸린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⁴⁴⁾ 세계화는 세계적인 것의 폭력으로 지평을 확장하였으며, 세계화는 지배적인 완전한 시스템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시스템은 암이고, 테러리즘은 암전으로 간주하였다.⁴⁵⁾ 문제는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의 폭력인데, 그는 세계적인 시스템이 자신의 지배권을 확장함에 따라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전 지구적 테러리즘의 근본원인을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계층화, 불평등화를 초래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왜곡을 가져오고, 왜곡된 의사소통으로부터 폭력의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보았다.⁴⁶⁾

하버마스는 테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 길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⁷⁾ 그는 모든 정치적 구조들을 압도하는 시장의 전 지구적 확산을 견제할 정치적 대항세력을 형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

44) Jean Baudrillard & Edgar Morin, *La violence du monde*, 105쪽.

45) 보드리야르의 견해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바이러스처럼 도처에 존재한다. 테러리즘은 마치 혈관 속으로 주입되듯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테러리즘은 은밀한 역전의 충격파라고 해석하였다. 같은책, 342쪽.

46) 이성백,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65권 2005년 5월, 225쪽. 하버마스는 폭력을 야기하는 의사소통의 체계적 왜곡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는 근본적 연결고리를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47)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79쪽.

은 대륙적 차원의 동맹들에 희망을 걸었다.⁴⁸⁾ 그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의 산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계화 과정으로 말미암은 국제적 불평등 구조를 속히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몰트만은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의 평등에 기초한 반면, 신 자유주의적이며 공격적인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불평등을 생산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⁴⁹⁾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세계화에 내재된 갈등이나 위기의 잠재적인 요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소외된 지역에 의료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접근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을 제공하고, 기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과 협력

테러리즘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복을 통한 응징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 국제법을 통한 정의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⁵⁰⁾ 노암 촘스키는 『숙명의 트라이앵글(Fateful Triangle)』에서 그동안 중동문제에 깊이 개입해온 미국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이스라

48) 하버마스는 이러한 희망을 국제법이 점진적으로 세계시민주의적 질서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유럽연합에 기대를 걸었다.

49) 몰트만,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2년 6월, 207쪽.

50) 소로스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내부적으로는 열린사회인 미국을 혼돈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였다. George Soros, *The Age of Fallibility*, (전병준 외, 『오류의 시대』 [서울: 네모박스, 2003]), 26쪽.

엘과 공존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간의 삼각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들 세 당사자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등은 이 삼각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극복하여 원한관계를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⁵¹⁾ 따라서 국제적 분쟁이나 갈등의 문제들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군사적 강제력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아키부기와 영(Daniele Archibugi and Iris Marion Young)은 테러리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국제 정책을 이끌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합법화하고 더욱 강화한다. 둘째, 179명으로 구성된 국제경찰기구인 Interpol과 같은 기구의 구축을 통하여 법률 강화와 세계 기구들을 조정한다. 셋째, 세계의 환전에 대한 재정적 규제를 강화한다.⁵²⁾ 넷째, 국제법정을 사용한다. 다섯째, 지구적 불평등을 좁힌다.⁵³⁾

지구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복수이다. 폭력은 복수를 먹고 자라고, 복수는 폭력을 먹고 자란다.⁵⁴⁾ 우리는 이러한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대한 현실적인 해

51) 구완서, 「기독교 윤리에서 본 테러리즘」, 대학복음화학회, 『대학과복음』 5집, 2001년 10월, 76-77쪽.

52) 나폴레오니는 테러리스트 무장집단이 군사적 지원과 금융 조달을 서로 연계시키는 국제적 연결망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테러의 신경제라고 규정하면서 오늘날 테러의 신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국제적 경제체제로 보았다. 이 경제의 연간 매출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것은 영국 연간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보고하였다. Loretta Napoleoni, *Modern Jihad : Tracing the Dollars behind the Terror Network* (이종인, 『모던지하드;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서울 : 시대의창, 2004]), 17-18쪽.

53) Daniele Archibugi and Iris Marion Young, “Envisioning a Global Rule of Law”,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162-169쪽. 미국의 경우, 미연방수사국(FBI), 미중앙정보국(CAI), 국방부, 주정부의 치안과 소방관련 기구 등 47개 정부기관역할을 조정하여 대테러업무를 관장할 국가안전본부(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대통령직속 장관급부처기관으로 신설하여 대테러업무전담 부서를 강화하였다.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92쪽.

54) Donald W. Shriver, Jr, *An Ethic for Enemies : Forgiveness in Politics*, 491쪽.

결책은 힘을 앞세운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강자는 지배적 담론 구조를 장악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강자들의 테러는 테러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강자 중심의 지배적 담론구조의 허상과 왜곡된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의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한다.⁵⁵⁾ 이기주의적 영토 확장과 자국 중심의 지배력의 강화 보다는 상호 공존을 위한 가치관의 전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국제 협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제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⁵⁶⁾

이와 아울러 평화를 실현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에의 의지가 없이는 평화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쓸모가 없다.⁵⁷⁾ 평화를 위한 갈망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이를 위해 제3세계의 빈곤해소와 피억압자들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수고가 시급히 요청된다.

55) 신보수주의자들(Neo-Con)은 국제관계는 법이 아니라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로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관계는 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구적 열린사회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George Soros, *The Age of Fallibility*, 15쪽 참고.

56) James P. Sterba,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221쪽.

57) R.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259쪽.

6. 나가는 말

위에서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들을 고찰하고, 테러리즘의 근본원인들을 사회 심리적 측면과 국제정치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테러리즘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테러리즘의 정당성은 특정 상황에서 더 큰 폭력이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기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도 테러리즘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테러리즘이 도구화하는 폭력은 극단적 공포를 유발시키면서 무고한 불특정다수의 희생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극단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구성원 전체에게 “당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메시지가 마스크를 통해 널리 공포되어 사회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테러리즘은 수많은 폭력수단 중에서도 가장 비이성적일 뿐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이 지닌 폭력성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파괴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 생명은 선의 근거이며 신성한 것이라는 생명존중사상이 강조되어야 한다.⁵⁸⁾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말미암은 지구촌의 불평등과 불공평의 구조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된 지역의 빈곤해소와 피억압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58)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윤리에 대해서는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21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년 5월, 180쪽을 참고하십시오.

왜곡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외채를 탕감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테러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만 테러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실천적 의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참된 평화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함으로부터 시작되며, 진정한 안전은 전 세계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숭실대학교)

참고문헌

-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2002년 12월.
- 구완서, 「기독교 윤리에서 본 테러리즘」, 대학복음화학회, 『대학과복음』 5집, 2001년 10월.
- 맹용길, 『폭력과 비폭력』, 서울: 쿰란출판사, 1994.
- 몰트만,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02년 6월.
- 백종국, 「9월의 테러와 문명충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6권, 2002년 10월.
- 안영섭, 「국제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북한연구소, 『북한』 394호, 2004년 10월.
- 이삼열, 「신앙세계」, 2001년 11월호.
- 이성백,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65권 2005년 5월.
-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21집, 중앙철학연구소, 2007년 5월.
- 조영갑, 『테러와 전쟁』, 서울: 북코리아, 2004.
- 주수기, 「현대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분쟁해결연구』 1권, 2003년 12월.
- 최병두,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생각의나무, 『당대비평』 18호, 2002년 3월.
-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22권 2호, 2001년 12월.
- Archibugi Daniele and Young, Iris Marion. “Envisioning a Global Rule of Law”,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Baudrillard Jean & Morin, Edgar *La violence du monde* (배영달, 『세계의 폭

- 력』, 서울: 동문선, 2003).
-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 『테러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Jung, Patricia B. & Jung, S.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 Kapitan, Tomis “The Terrorism of Terrorism”,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Mackinon, B. *Ethics*,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 Napoleoni, Loretta, *Modern Jihad : Tracing the Dollars behind the Terror Network* (이종원, 『모던지하드;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서울 : 시대의창, 2004).
- Pojman, Louis P. “The Moral Response to Terrorism and Cosmopolitanism”,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Valls Andrew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김한식, 박균열,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 Shriver, Jr, Donald W. *An Ethic for Enemies : Forgiveness in Politics* (서광선, 장윤재, 『적을 위한 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Soros, George *The Age of Fallibility* (전병준 외, 『오류의 시대』, 서울: 네모북스, 2003).
- Sterba, James P. *Terrorism and Interna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tern, Jessica *The Ultimate Terroris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Wilkins, B. T. *Terrorism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New York: Routledge, 1992.
- Wilson, H. S. “Terrorism and Religious”, Patricia B. Jung, & S. Jung, *Moral Issues and Christian Responses*, Belmont, CA : Thomson, 2003.
- 중앙일보, 2001년 9월 13일.

A Survey on the Moral Justification of Terrorism

Jong-Won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several causes of terrorism and then to critic the legality of terrorism. Through this course, I'll prepare realistic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Unlike general violence, terrorism has many moral problems because it uses radical and ruthless violence against innocent people.

Terrorism breaks out from several problems and these problems are complex and interrelate. The prime cause of terrorism emerges from globalization of new liberalism which produces inequality in the world.

According to Wilkins, terrorism is justified as a form of self-defense and just war theory. First, terrorism should be limited to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which are collectively guilty of violence. Second, as far as possible, terrorism should be confined to primary targets and not secondary targets. The problem is that these rules are realistically impossible to keep. Therefore terrorism loses justification because of indiscriminate violence and vulnerability of the innocent. Nonviolence is an efficient solution to this problem.

To solve the problems of terrorism, first we must find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root of inequality and eliminate it. We take to mind the hospitality that acknowledges and respects the difference of others. We have to prepare elementary support programs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third world.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we must support the economical background so that they may develop strong industry. These efforts will provide the community of coworker and coexistence.

Also we control and negotiate conflict and strife through the justice of international law. To achieve this goal, we must respect international law

and distribute equally their resources. We must solve indigence of the third world and improve human rights of the oppressed.

Key Words: Terrorism, Justification, Violence, Globalization, New Liberalism, Unequality, Hospitality.

이종원 e-mail : jwlee@ssu.ac.kr